

EVS37

LG그룹, 전사 차원 전시관 운영...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공유

LG전자 전기차용 플랫폼 소개
LG엔솔 'B-라이프케어' 선보이
LG디스플레이 차세대 OLED 제품 등 전시

LG 그룹 계열사들이 세계 최대 전기차 행사에 출동해 미래 모빌리티 청사진을 제시한다.

LG그룹은 26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 전기차 행사인 '제37회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EVS37은 세계 전기차동맹협회(WEVA)와 아시아태평양전기차동맹협회(EVAAP)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KSAE)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학술대회·전시회로 전기차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LG는 계열사별 특화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영역에서 다양한 전장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기차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에 LG그룹은 이번 EVS37에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4개 계열사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 스토리'를 주제로 전시관을 공동 운영한다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EVS37 행사에 마련한 LG 계열사 공동 전시관. /LG

LG는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 ▲전기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해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파워트레인 시스템' ▲자율주행 주요 부품인 '차량용 카메라' 및 '라이다(LiDAR)' ▲차량 내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차량용

콘텐츠 플랫폼'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된 P-OLED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계열사들이 보유한 미래 모빌리티 제품과 기술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요구에 따라 맞춤형 제곱이 가능한 파우치형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를 비롯해 더 가벼우면서 안전하고 높은 에너지 효율을 구현한 '셀투팩' 기술,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최적화해주는 'B-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LG전자는 계기판, 중앙정보디스플레이(CID), 보조석 디스플레이 등 3개 화면이 하나로 통합된 프리미엄 전기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핸드폰이나 TV로 즐기던 고화질 영상,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차량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차량용 콘텐츠 플랫폼(ACP)을 소개한다.

LG디스플레이는 고화질 P-OLED, 탠덤 OLED 기술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ATO(Advanced Thin OLED), 무안경 3D 계기판과 시야각 제어 기술(SPM)이 적용된 저온 다결정실리콘(LTPS) LCD 제품을, LG이노텍은 차량용 카메라, 라이다 등 센싱 솔루션, 커넥티드 카 구현을 위한 '5G-V2X 통신 모듈' 등 차량용 통신 솔루션, 고부가 차량 조명 모듈 '넥슬라이드' 등 라이팅 솔루션,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EVS37기조 연설자로 나서 '모빌리티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LG 연구진은 학술대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와 고장진단 분석',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을 위한 주요 기술' 등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LG의 연구개발(R&D) 역량을 알린다.

LG 관계자는 "이번 전시 참가는 배터리와 전장 사업을 영위하는 LG 계열사들이 전기차동맹 분야에서 LG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그룹 내 역량을 결집해서 사업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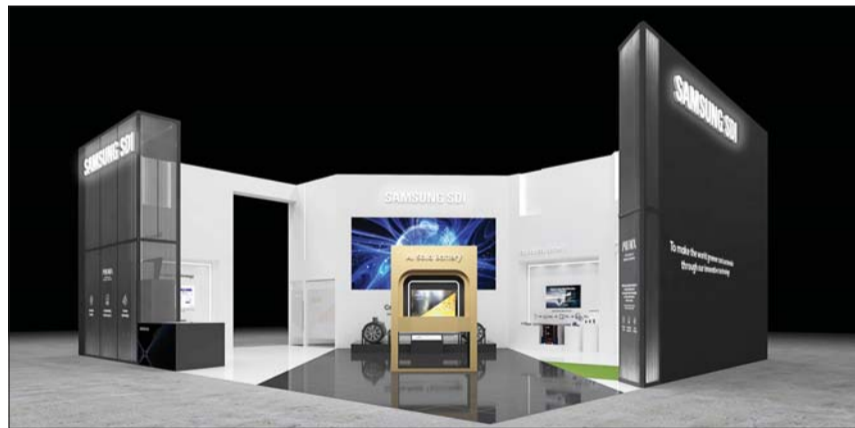
삼성SDI, 초급속·초장수 배터리 등 기술력 뽐내

무음극 등 혁신 기술 대거 전시
열확산 방지 솔루션 이목집중

삼성SDI가 전 세계 석학들에게 미래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SDI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7회 세계전기차동맹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는 삼성SDI는 지난 전시보다 규모를 2배 확대한다.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9분 초급속 충전, 20년 이상 초장수명 특성 등 미래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혁신 기술들을 대거 전시하고 '초격차 기술



2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7회 세계전기차동맹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에 참가하는 삼성SDI의 전시회 부스 조감도. /삼성SDI

력'을 강조한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를 부스 전면에 내세워 삼성SDI의 독자적인 무음극

기술과 업계 최고 에너지 밀도(900Wh/L) 등 ASB(All Solid Battery)의 특징점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양산

로드맵을 전시해 전고체 배터리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전기차 대중화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초급속 충전과 초장수명 기술도 공개한다. 삼성SDI는 9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기술을 2026년, 20년간 사용 가능한 초장수명 배터리 기술을 2029년 양산 목표로 개발해 전기차 시대로의 신속한 전환을 이끌 계획이다.

올해 행사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열폭주 현상'과 관련해 삼성SDI의 열확산 방지 솔루션도 주목된다. 충격이나 화재로 인한 고열과 가스 발생시 각형 배터리의 밴드(배출구)로 빠르게 배출하여 배터리 간 열 전파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이 외에도 삼성SDI는 46파이 등 신규 제품 라인업과 에너지 밀도는 높고 비용은 줄인 CTP(Cell to Pack) 등 배터리 기술력도 공개할 예정이다.

부스 한편에는 삼성SDI의 ESG 경영 내용도 전시된다. 해당 공간에서는 2차전지 업계 최초로 인증받은 탄소발자국 내용과 RE100 실천 계획 등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고민하는 삼성SDI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전고체 배터리와 초급속 충전, 초장수명 특성 등 미래 배터리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며, "삼성SDI의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항균 기능성 소재' 신사업 속도

차이나플러스서 '퓨로텍' 소개

LG전자가 '항균 기능성 소재'를 글로벌 기업간거래(B2B) 성장 동력으로 삼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자체 개발한 항균 기능성 소재 '퓨로텍'이 이날부터 사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 2024' 에서 올해의 혁신 제품으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퓨로텍(PuroTec™)은 Pure(오염되지 않은), Protect(보호하다),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제품을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은 항균 기능성 소재다. 유리

파우더 형태로 플라스틱이나 페인트, 고무 등 소재를 만들 때 소량 첨가하면 미생물에 의한 악취, 오염, 변색 등을 막는 항균 및 항곰팡이 효과를 낸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퓨로텍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주요 시장으로 확대 중으로, 지난해 대비 700% 이상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퓨로텍이 글로벌 B2B를 이끌 주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은 "유리 파우더 연구와 이를 가전제품에 적용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기능성 소재를 B2B 사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삼성전자, 북미시장 '키친 패키지' 공급

클레이턴사 신규주택 생활가전 공급

삼성전자가 미국 유력 건설사인 '클레이턴 홈 빌딩 그룹(Clayton Home Building Group)'과 생활가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클레이턴사가 신규 공급하는 주택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전자레인지 등으로 구성된 키친 패키지를 공급하고, 입주자가 세탁기와 건조기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키친 패키지는 와이파이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고효율 에너지 제품에 부여하

는 '에너지 스타'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구성된다.

입주 고객들은 삼성전자의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통해 기기 간 연결과 제어를 손쉽게 할 수 있고, 전등이나 스위치 같은 제3의 기기까지 연결해 스마트한 홈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최익수 부사장은 "스마트싱스 기반의 스마트한 연결 경험과 고효율 에너지 성능을 인정받아 삼성 가전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앞으로도 북미 지역의 주요 건설사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삼성중, 한국형 LNG화물창 한국가스공사 구상권 청구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결함으로 SK해운에 3800억원을 배상한 것과 관련해 개발 책임이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이 설계 결함이 발견된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적용된 LNG운반선과 관련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사에 배상한 금액에 대해 구상 청구 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